

■ 2024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심의 총평

- 회의명 : 2024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3차 통합심의
- 회의일시 : 2023년 12월 8일(금) 13:00~18:00
- 회의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지하 1층 회의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정기대관 사업은 예술가(단체)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기후생태계를 비롯해 젠더, 장애, 국적, 인종, 다양성을 지향하는 미래 극장의 목표를 함께 고민하고 조성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정기공모에는 총 291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장르별로는 연극 133건, 무용 125건, 뮤지컬 10건, 다원 10건, 기타 11건, 행사 2건이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97건(150%)이 증가한 수치로, 팬데믹 이후 공연예술계 창작활동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3차 심의는 1차 사전심의, 2차 인터뷰(축제) 심의를 통해 올라온 단체를 대상으로 장르별 통합심의로 진행 되었다. 심의 대상으로는 1차 장르별 서류심의를 통해 올라온 공연과 2차 인터뷰 심의를 거쳐 올라온 축제 등 총 128건을 대상으로 삼았다. 심의과정에서는 가능한 많은 단체가 공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청 공연장 및 신청 일정, 사용 일수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신청 당시 변경 가능 의사를 표명했던 단체들의 공연장과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가능한 원하는 계획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변동 폭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 특히 장르별 선정 건수 및 비율, 축제 건수 및 사용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결과 단독 공연 총 79건, 축제 총 18건 등 최종 97건이 선정되었다. 또한 조정된 일정이 수용 안되거나 선정 후 취소 단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 20건을 선정하였다.

최근 공연예술계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동시대의 다양한 문제를 읽어내고, 예술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신청단체 중 상당수가 극장이 지향하는 미래 극장의 가치와 역할에 공감하는 것은 물론, 이를 실현하는 방식에서 독창적이고 참신한 주제와 형식을 흥미롭게 제시하고 있는 공연들이 많았다. 특히,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한 실험적 시도, 개인의 서사에서 동시대의 현재성으로 주제성을 확장하거나, 사회적 현안을 무게감 있고 과감하게 풀어내고 있는가 하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등 향후 극장과 협업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눈에 띄었다.

다만, 전년 대비 올해 신청단체 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더 많은 단체를 선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하여, 가능한 일정 및 공연장 조정을 통해 최대한 많은 단체를 수용하되, 경합이 심하여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1차, 2차 심의 결과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단체를 우선순위로 하였다. 또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단체가 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독 공연의 경우 최대 2주를 기준으로, 축제의 경우 전년 사용 일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3차 통합심의회는 다소 기간 및 공연장의 변동이 필요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단체가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 조정에 집중했다. 또한 작품당 공연 일수가 적은 무용과 달리 작품당 공연 일수가 긴 연극 등 장르별 특성을 고려하여 장르 간 균형감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무엇보다 축제와 단독공연 간의 균형을 위해 축제의 극장 사용일이 전년 대비 더 늘어나지 않도록 선정 일수를 세심하게 살펴보았으며, 프로그램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해외 초청 등에 따른 일정 조율의 사유 등이 제시되지 못한 2개년 축제 신청 사업의 경우는 단년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본 것은 1차, 2차 심의를 거쳐 올라온 단체들이 원하는 장소와 기간에 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되, 가능한 많은 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부분이었다.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선정되지 못한 단체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여전히 아쉽다. 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에서 공연을 계획하는 예술단체가 많아졌다는 것은 분명 반가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공공극장으로서의 신뢰도가 이전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전년보다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극장 정기대관 공모에서는 다양한 주제와 소재, 공연의 형식을 중심으로 예술현장의 다음을 다양한 형태로 고민하는 작품들이 많았다. 동시대의 문제에 세밀하게 감각하고, 그것을 확산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과 극장이 제시하고 있는 미션이 서로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심의위원 일동